

일부농촌의 불임수술자 실태

경북 선산군 보건소

<지 도: 정 종 학* 조교수>

김 중 자

—Abstract—

Voluntary Sterilization in Rural Korea

Joong-Ja Kim, M. D.

Sunsan Health Center, Kyungpook, Korea

<Directed by Jong-Hack Jeung, M. D.>

The Korean family planning program began in 1962, originating both in a concern for family well-being and in a concern over a high population growth rate which was cancelling advances in economic capacity. The new program was frank and vigorous in its advocacy of birth control. In recent years, voluntary sterilization as a family planning method has many attributes that cause users of contraceptives to regard it as an ideal method in Korea.

A point of these view, author performed a follow-up study on effects of vasectomy and tubal ligation on sociomedical aspects of total 136 men sterilized and 96 women sterilized in Sunsan Gun, Kyungpook Province as of July, 1977.

The results were summerized as follows:

An average age of vasectomized men was 37.0 and that of tubal ligated women, 34.9. The average duration of marital life was 13.9 years in men sterilized and 14.6 years in women sterilized. An average number of living children at the time of sterilization was 3.6 in men sterilized and that of living children, 3.7 in women sterilized.

The most predominant reason for the sterilization was birth control in both (91% in men, 52% in women) and the most common motivating socilitator was family planning field workers (71% in men, 48% in women). About 51 percent of men sterilized and 50 percent of women sterilized were used contraceptive methods before the operation. Experience of induced abortion is reported in 65 percent of wives of men sterilized and 64 percent of women sterilized. In sexual feeling after sterilization, respondents showed increasing coital frequency 21 percent in men sterilized and 10 percent in women sterilized. Sixty-five percent in men sterilized and 64 percent in women sterilized would recommend the operation to others.

서 론

정관절제술은 Proust(1896), Albarran(1909), Sa-

lvini (1925) 및 Brondy (1930)등^{1,2)}이 권립선 수술 후 감염방지를 위하여 사용된 이래 현재 피임을 목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며 난관결찰술은 Knight 와 Summit(1880)³⁾에 의해 처음 시도된 이래 여성측 영구피임방법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관절제술의 적응증은 Donnelly⁴⁾는 유전적 질환, 반복된 임신으로 인한 질병의 악화, 육체적 정신적 및 정서적 결함과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는 것 등 이라고 했으며, Risser⁵⁾는 다산이나 경제적 이유라고 보고했고, 난관결찰술의 경우 과거에는 만성 고혈압성심장 및 신장질환, 2회 이상의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사람 및 정신과적 질환등 의학적 적응증으로 많이 시행해 왔으나, 근래에는 가족계획의 전지에서 산아제한의 목적으로 많이 시행되는 경향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도 국가적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되어 조직된 사업으로 남자 불임시술이 가족계획협회와 몇개의 연구기관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1963년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전국에 600명을 훈련시켜 남자불임시술의로 위촉하여 남자불임시술사업이 중심이 되어왔고, 여자 불임시술사업은 정부지원이 미약했으나 1973년도에 이르러서는 총 불임시술전수의 17%가 난관결찰수술자였다⁶⁾.

지금까지 피임방법으로 자궁내장치, 월경주기법, 콘돔, 먹는피임약등 여러가지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피임방법으로 구비해야 할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불임수술은 임신예방이 효과적이고, 한번 시술로 효과가 지속적이며, 건강에 무해하고, 성생활에 방해가 되지않는 방법으로서, 현재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그 역할이 지대하리라 믿는다.

그리하여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북 선산군에서 남녀불임수술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추적하여 앞으로 불임 시술사업에 다소 참고가 될까하여 조사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1977년 7월 1일부터 1개월간에 걸쳐 경북 선산군 주민을 대상으로 각면 가족계획요원을 이용하여 정관절제술과 난관 결찰 수술을 받은 사람을 미리 파악하고 현재 조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가정방문하여 면접조사하였다. 1973년 이전에 수술받은 사람은 그 숫자가 적고 파악하기 어려워 본 조사에서는 제외되었다.

성 적

선산군내에서 과거 5년간 정관절제수술을 받은 사람은 136명이었고, 난관결찰수술을 받은 부인은 96명으로서 그 이전에 가족계획을 위해 수술을 받은 사람은 거

Table 1. Calendar Year at Sterilization

Year	Vasectomy		Tubal ligation	
	No.	(%)	No.	(%)
1973	15	(11.0)	6	(6.2)
1974	31	(22.7)	12	(12.5)
1975	28	(20.5)	17	(17.7)
1976	45	(33.0)	23	(23.9)
1977	14	(10.2)	35	(36.4)
No response	3	(2.2)	3	(3.0)
Total	136	(100.0)	96	(100.0)

Table 2. Age Distribution at Sterilization

Age groups	Vasectomy (N=136)	Tubal ligation (N=96)
25-29	5.1%	11.4%
30-34	29.4	39.5
35-39	36.7	32.2
40-44	18.3	9.3
45-49	5.1	2.0
50-54	0.7	—
No response	4.4	5.2
Mean age	37.0 yrs.	34.9 yrs.

Table 3. Interval from Marriage to Sterilization

Interval (years)	Vasectomy (N=136)	Tubal ligation (N=9)
Under 5	4.4%	3.1%
5-9	21.3	18.7
10-14	27.9	39.5
15-19	20.5	16.6
20-24	12.5	13.5
25-29	2.2	3.1
30-34	0.7	3.1
No response	10.2	2.0
Mean	13.9 yrs.	14.6 yrs.

의 없었다. 1973년부터 시작해서 해가 거듭됨에 따라 점차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난관결찰이 뚜렷하게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1).

Table 4. Number of Living Children

No. of children	Sons		Daughters		Both	
	Vasectomy (N=136)	Tub. lig. (N=96)	Vasectomy (N=136)	Tub. lig. (N=96)	Vasectomy (N=136)	Tub. lig. (N=96)
0	0%	0%	11.7%	10.4%	0%	0%
1	16.1	21.8	30.8	29.1	0	0
2	55.8	41.6	27.2	33.3	20.5	13.5
3	18.3	29.1	8.0	12.5	27.9	33.3
4	6.6	5.2	5.1	3.1	30.8	31.2
5	2.9	0	1.4	1.0	12.5	12.5
6	0	0	0	0	5.1	4.1
7	0	0	0.7	0	1.4	2.0
8	0	0	0	0	0.7	0
9	0	0	0	0	0.7	1.0
No response	0	2.0	14.7	10.4	0	2.0
Mean	2.3	2.2	1.7	1.7	3.6	3.7

영구피임을 위해서 수술받은 사람들의 연령분포는 정관절제술의 경우 30대가 66%, 난관결찰술은 72%로서 3분의 2 이상이 30대에서 실시되었고 평균연령은 정관수술자가 37.0세, 난관결찰자가 34.9세였다 (표 2).

결혼후 수술까지의 기간별로는 10~14년이 남자는 28%, 여자는 39.5%로서 제일 많았고 평균기간은 남자가 13.9년, 여자가 14.6년이었다 (표 3).

수술자들의 현존 자녀수는 정관절제술의 경우 아들 2명, 딸 1명이, 난관결찰의 경우 아들 2명, 딸 2명이 제일 많았으며, 평균자녀수는 정관절제와 난관결찰이 거의 같은 수로서 아들 2.2~2.3, 딸 1.7명, 합계 3.6~3.7명이었다 (표 4).

수술이유로서는 산아제한 목적이 남자는 91.1%, 여자는 52.0%로 가장 많았고, 여자의 경우 건강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42.5%로서 남자보다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었으며 경제적 이유는 적었다 (표 5).

수술권유자는 가족계획요원이 정관은 70.5%, 난관은 47.9%로서 제일 많았고, 권유자 없이 스스로 결정해서 수술받은 사람이 정관은 19.1%, 난관은 20.8%로서 약 5분의 1은 권유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의 권유는 정관은 전무하고, 난관은 15.6%로서 여자의 경우는 산부인과 의사의 권유가 다소 효과적인 것 같다 (표 6).

수술전 피임은 정관의 경우 17.4%, 난관은 35.3%가 피임 경험이 없었고, 피임 실시자의 방법으로는 먹는피임약이 정관의 경우 25%, 난관은 27.0%로 제일 많았

Table 5. Reasons for Sterilization

Reasons	Vasectomy (N=136)	Tubal ligation (N=96)
Birth control	91.1%	52.0%
Disease or health	3.6	42.5
Economical	3.6	4.1
No response	1.4	1.0

Table 6. Motivating Socilitators of Sterilization

Socilitators	Vasectomy (N=136)	Tubal ligation (N=96)
None	19.1%	20.8%
FP workers	70.5	47.9
Husband or wife	2.9	4.1
Friends	2.9	3.1
Member of family	1.4	4.1
Doctors	0	15.6
No response	2.9	4.1

고, 다음이 자궁내장치 방법이였다 (표 7).

이상적 피임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관수술자의 경우는 스스로 정관절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이 72%로 단연 제일 많았고, 난관의 경우도 스스로 난관결찰이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59.3%로 제일 많았으며 정관수술자는 배우자의 난관결찰을 원하

Table 7. Contraceptive Methods before Sterilization

Contraceptive methods	Vasectomy (N=136)	Tubal ligation (N=96)
None	17.4%	35.3%
Oral pill	25.0	27.0
IUD	16.1	14.5
Condom	4.4	5.2
Rhythm	1.4	2.0
Interruption	4.4	1.0
No response	10.9	14.5

Table 8. Ideal Contraceptive Methods

Methods	Vasectomy (N=136)	Tubal ligation (N=96)
Vasectomy	72.0%	21.8%
Tubal ligation	16.1	59.3
Oral pill	2.2	3.1
IUD	2.2	3.1
Condom	0	2.0
Rhythm	0.7	2.0
Interruption	0	1.0
Others	2.2	1.0
No response	4.3	6.2

Table 9. Induced Abortion Experienced before Sterilization

No. of induced abortion	Vasectomy (N=136)	Tubal ligation (N=96)
0	28.6%	22.9%
1	22.0	26.0
2	19.1	20.8
3	7.3	9.3
4	1.4	4.1
5	1.4	2.0
6	2.2	0
7	0	2.0
8	0	0
9	1.4	0
10	0.7	0
No response	15.4	12.5
Mean	1.5	1.6

Table 10. Coital Frequency after Sterilization

Frequency	Vasectomy (N=136)	Tubal ligation (N=96)
More	21.3%	10.4%
Unchange	58.0	72.9
Less	17.6	10.4
No response	2.9	6.2

는 사람이 16.1%인데 비해서 난관수술자는 배우자의 수술을 원하는율이 21.8%였고 기타 피임방법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 (표 8).

수술전 인공유산 경험은 정관절제술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나, 난관결찰술을 받은 사람이 비슷한 양상이었고 평균회수는 1.5~1.6회였다 (표 9).

성교회수가 수술후에 증가, 혹은 변화 없는 사람이 정관은 79%, 난관은 83%였고, 감소가 정관은 18%, 난관 10%였다 (표 10).

성생활의 만족도는 수술후 좋아졌다는 것과 별 변화 없다는 사람이 정관은 90%, 난관은 87%로 비슷했고, 불만인 경우는 정관이 7.3%, 난관 6.2%로 역시 비슷한 비율이었다 (표 11).

다른 사람에게 수술을 적극 권유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정관과 난관의 경우 비슷하게 각각 64.7%, 63.5%였고 권유를 못하겠다는 사람이 정관은 5.8%, 난관은 12.5%이었다 (표 12).

고 찰

1962년도에 국가적 시책으로 가족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도 산발적으로 불임수술이 시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니, 실제적으로는 1962년에 와서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시술의사 훈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그 실적이 미미하였으며, 1970년 후에는 많은 호응을 받아 1973년까지 남아불임수술이 전인구의 1.1%이어서 인도(1.6%)나 미국(1.5%)에 비해서는 부진하다고 하겠으나 전세계 (0.5%)적으로 볼 때는 불임수술이 상당히 활발한 나라이다⁹⁾.

일반적으로 불임수술의 이유¹⁰⁾는 유전성 소인을 막기 위한 우생수술,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이나 건강상의 이유, 부부간의 임신공포로 인한 성생활을 원활히 이루지 못할 경우를 들 수 있으나 오늘날 불임수술의 주목적은 자녀수 조절이라고 하겠다.

연도별 불임수술자는 전국적으로는 1973년 이전에 아

Table 11. Sexual Satisfaction after Sterilization

Satisfaction	Vasectomy (N=136)	Tubal ligation (N=96)
Satisfaction	33.0%	14.5%
Same before	56.6	72.9
Dissatisfaction	9.5	7.2
No response	1.4	5.2

Table 12. Recommendation of Sterilization to Others

Recommendation	Vasectomy (N=136)	Tubal ligation (N=96)
Yes	64.7%	63.5%
No interest	27.9	22.9
No	5.8	12.5
No response	1.4	1.0

미 상당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¹¹⁾ 대상지역이 농촌이고 보수적인 곳이라서 1973년 이전의 실적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1973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볼 때 앞으로 불임수술 보급의 전망은 밝다고 하겠다.

연령분포는 30대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20대부터 시작되고 있었는데, 정관절제술은 이¹²⁾의 20대 4%, 30대 53%, 평균연령 38.8세보다 연령이 낮았고, 난관결찰술은 홍¹³⁾의 20대 18.9%, 30대 77.3%보다 연소하였는데 농촌지방이라서 결혼연령이 낮아서 결혼기간이 도시보다 같은 연령에서는 길기 때문인 것 같다.

결혼기간은 10~14년이 정관절제술은 28%, 난관결찰술이 40%로 제일 많았고, 5~9년과 15~19년이 남자는 21%, 여자는 17%내외로 비슷한 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5년에서 20년 사이가 3분의 2를 차지했는데, 이¹²⁾의 결과와 비슷했다.

현존 자녀수는 정관의 경우 아들과 딸이 2:1, 난관의 경우 2:2가 제일 많았고 자녀총수는 3~4명이 60% 내외였고 평균 자녀수는 3.6~3.7명이었다. 이⁹⁾의 평균 자녀수 4.7보다는 적었으나 이³⁾의 3.3과 홍¹³⁾의 3.3, G. Worth¹⁴⁾의 3.2보다 많았다.

불임수술의 이유로는 산아제한의 목적이 91.1%, 난관수술은 52.0%로 제일 많았고 난관수술은 질병이나 건강상 이유가 40.5%였는데 정관절제술의 경우 최¹⁵⁾ 등의 산아제한 목적 71.5%보다 높았다. 불임수술 권유자는 가족계획요원이 정관수술은 70.5%, 난관수술은 47.9%로 제일 많았는데, 최¹⁵⁾ 등의 58%보다 높은 것은

농촌지방은 도시보다 가족계획요원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겠다.

수술전 피임실시율은 피임하지 않은 사람은 정관수술의 경우 17.4%, 난관수술은 35.3%로서 홍¹³⁾의 난관수술 경우의 21.7%보다 피임실시율이 낮았고, 정관수술자와 난관수술자가 다같이 먹는 피임약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상적 피임방법은 정관수술을 한 사람은 정관수술이 좋다는 사람이 72.0%였고, 그 외는 여자측 피임방법이 좋다는 것이고 난관수술을 받은 사람은 난관수술이 좋다는 사람이 59.3%였고 정관수술이 좋다는 사람이 21.8%로서 배우자의 피임보다 자기자신의 피임실시를 원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수술전 인공유산 경험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정관수술자는 28.6%, 난관수술자는 22.9%였고 평균 1.5~1.6회로서 홍¹³⁾의 보고 2.7회보다는 적었는데 이것은 농촌지방이기 때문에 도시보다 적은 것 같다.

수술후 성교회수는 많아졌다는 사람이 정관수술은 21.3%, 난관수술은 10.4%였다. Ferber¹⁶⁾의 정관절제술전에 주 평균 성교회수 2.0회가 수술후 2.3회로 증가했다는 보고와 일치점이 있다.

성적 만족도는 좋아졌다는 사람이 정관절제술은 33% 난관결찰술은 14.5%로서 이¹²⁾의 87%보다는 적었다.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권유하겠다는 사람은 정관은 65%, 난관은 64%로서 최¹⁵⁾의 77%보다는 적었으나, 약 3분의 2의 사람은 권유하겠다고 했다.

요 약

과거 5년간 경북 선산군에서 남녀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 232명(남 136, 여 96)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불임수술시 연령은 30대가 정관수술자는 66.1%, 난관수술자는 71.7%로 평균연령은 정관이 37.0세, 난관이 34.9세였고 결혼기간은 평균 정관수술자가 13.9년, 난관수술자가 14.6년이었다.

자녀수는 정관수술자가 평균 아들 2.3, 딸 1.7, 합계 3.6명이고 난관수술자는 아들 2.2, 딸 1.7, 합계 3.7명이었다.

수술이유는 산아제한 목적이 정관수술자는 91.1%, 난관수술자는 52.0%였고, 수술권유자는 가족계획요원이 정관은 70.5%, 난관은 47.9%였다.

수술전 피임실시자가 정관수술자는 51.3%이고 난관

수술자는 49.7%였으며 이상적인 피임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관수술자는 정관수술이 72.0%, 난관수술자는 난관수술 59.3%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술전 인공유산 경험율이 정관수술자의 부인이 65.3%, 난관수술자는 64.2%였다.

수술후 성교회수가 많아진 사람이 정관수술은 21.3% 난관수술은 10.4%였고 성생활이 시술 이전보다 더 만족한 경우는 정관이 33%, 난관이 14.5%였다.

다른 사람에게 불임수술을 권유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정관수술의 경우 64.7%, 난관수술자는 63.5%였다.

REFERENCES

- 1) Crabtree, E. G., and Brondy, M. C. : *Vasectomy in prostatic surgery; A review of 141 consecutive prostatectomies*, *Amer. J. Genito-Urin. Surg.*, 23:383, 1930.
- 2) Haralamidis, G., and Spineli, A. N. : *Vasectomy: An evaluation*, *J. Urol.*, 99:591, 1963.
- 3) Knight, R. V., and Summit, N. J. : *Tubal sterilization*, *Amer. J. Gynecol.*, 51:201, 1946.
- 4) Donnelly, R. C., and Ferber, W. C. : *The legal and medical aspects of vasectomy*, *J. Urol.*, 79:318, 1958.
- 5) Rieser, C. : *Vasectomy; Medical and legal aspects*, *J. Urol.*, 79:138, 1958.
- 6) 이희영 : 정관절제술이 의학 및 사회심리학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구문제론집*, 11, 1970.
- 7) Kim, T. I., Ross, J. A., and Worth, G. C. : *The Korean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The Population Council, New York*, 1972.
- 8) Russel, K. P. : *Current trends in indications for female sterilization*, *Amer. J. Obstet. Gynecol.*, 101:348, 1968.
- 9) 양재모 : 한국 가족계획 사업을 위한 자원 영구피임 사업의 중요한 역할, 불임술 pp. 31-44, 1975.
- 10) Nathan, C. : *Male sterilization*, *J. Urol.*, 87:512, 1962.
- 11) 보사부 : 1975년도 시도별 가족계획 실무자회의자료 1975.
- 12) 이승호 : 정관 절제술 112예에 대한 임상적 고찰, 한일병원 임상잡지, 3(1):47, 1972.
- 13) 홍성봉 : 고려의대 부속병원에서의 복강경불임시술의 현황, 불임술, pp. 123-127, 1975.
- 14) Worth, G. C. : *Out-patient tubal-ligation in six Seoul hospitals*, *Seoul*, 1974.
- 15) 최락규, 이희영 : 정관절제술이 심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불임술, pp. 99-107, 1975.
- 16) Ferber, A. S. : *Men with vasectomies; A study of medical, sexual, and psychosocial changes*. *Psychosomatic Med.*, 29:354, 1967.